

영산강·섬진강 녹조 예방 본격화

영산강유역환경청 대응체계 가동 '2024년 조류경보제 계획' 실시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영산강·섬진강 수계 녹조(유해 남조류) 발생 예방을 위해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녹조 예방을 위해 '2024년 조류경보제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녹조는 남조류가 과도하게 성장해 물 색깔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높은 온도와 강한 햇빛, 물 순환 정체 등에 의해 발생한다. 녹조가 발생하면 물고기와 수중생물의 폐사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악취가 나고 수중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에 영산강청은 주암호 등에 대해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1000cell/ml 이상일 경우에는 조류경보제(관심·경계·조류대발생단계)를 시행한다.

특히 올해 여름은 연평균 기온이 평년(12.3~12.7도)보다 높게 전망돼 녹조 발생에 유리한 환경일 것으로 예상돼 관계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영산강청은 녹조 발생 최소화화를 위해 수질관리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주 1회 기관간 녹조대책 공유 및 협력방안을 강화하고 주 1회 수질분석, 주 1회 드론감시, 주 2회 하천 순찰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류 발생 전후 신속 대응을 위해 자체 조류대응상황실(5월~10월)을 운영하며 녹조 주요 오염원인 상수원 및 하천주변 아적퇴비를 집중관리 강화한다. 가족분뇨 배출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오염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한편 영산강에서는 2013년 이명박정부의 4대강



지난 2017년 당시 영산강 죽산보가 녹조 피해를 입은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사업으로 조성된 보 건설 이후 매년 여름 녹조가 급증했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승촌보와 죽산보 상시 개방 결정이 내려진 이후 잠잠해졌다.

환경부가 2017년 6월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모니터링 한 결과, 2019년 영산강의 여름철(6~9

월) 유해 남조류 세포수는 163cells/μl로 2013~2017년 평균치(4693cells/μl)보다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지난해까지 영산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영산강 보 처리방안·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원상복구하라”

광주·전남 환경단체 촉구...전국환경단체, 4대강 사업 망령 부활 정부 규탄

광주·전남 환경단체들이 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 환경단체들이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 망령 부활시키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4대강 사업으로 물 흐름이 가로막혀 해마다 녹조가 창궐해 녹조독소가 국민 건강과 국토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부정하고, 수년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립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10년 단위 물 분야 최상위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 문구를 전부 삭제하고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말로 바꿔 치기하는 추상적이고 조악한 수준으로 졸속 변경했

다”면서 “국가의 물정책을 이토록 허술하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서, 이제는 재해 예방을 운운하며 댐 추가 건설, 하천 준설을 물정책 기조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댐 추가건설”, “하천준설” 등 정부가 내놓은 토건 개발은 녹조를 악화시키고 악취 필발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낙동강은 매년 녹조가 창궐함에도, 보 개방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라는 것이다.

단체 관계자는 “아무런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고 세종보를 재가동하는 것은 이미 실패한사업으로 판명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망령을 부활시키겠다는 뽀니에 불과하다”며 “세종보 공주보 재가동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복구하고 당장 이행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7년 세종보 개방을 시작으로 만 4년간의 보 개

방 모니터링과 경제타당성 평가, 국민의견수렴, 금강 영산강유역 물관리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금강 세종보 철거·공주보 부분철거·백제보 상시개방, 영산강 승촌보 상시개방·죽산보 철거’를 골자로 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했지만 2022년 7월 감사원은 4대강 국민연합이 제기한 4대강 관련 5번째 감사 결과로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시키지 않았다”고 환경부에 주문했다.

결국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2년 8월 기존 처리방안에 대해 ‘취소’를 의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 어린이·청소년 축구팀 ‘태클씨씨’ “환경과 스포츠 통해 지구를 지지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축구팀인 광주 ‘태클씨씨(Tackle CC)’는 이스포츠 엘스 소속으로, ‘환경과 스포츠를 통해 지구를 지지한다’는 목표를 갖고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고 있다. 태클씨씨가 입은 유니폼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페트병 13개를 재활용해 만

든 것이다. 이스포츠 엘스는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연대해 스포츠와 기후 위기의 상관관계에 대한 교육, 운동장 주변 쓰레기 줍기, 1회용품 없는 체육활동, 환경사랑 그림 전시회 개최 등 여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지리산전남사무소, 자연숲 살리기 나무심기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자연숲을 살리기 위한 나무심기에 나섰다. <사진> 지리산 전남사무소는 ESG경영기업 에어리퀴드코리아와 함께 ESG경영 지리산국립공원 자연숲 복원을 위한 자생식물 식재 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식재 행사에는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와 에어리퀴드코리아 임·직원, 천은사(구례) 직원, 자원활동가 등 총 8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천은사 상생의길 일원에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기증한지리산 자생식물인 백당나무, 조팝나무 등 2750주를 심었다. /김다인 기자 kdi@

남구 ‘치매 예방 요가교실’ 12일~7월31일 운영 참가자 모집

광주시 남구가 ‘치매 예방 요가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남구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치매 예방 요가교실’을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한다. 요가교실은 남구 노대동의 ‘노대동 더뎃 요가원’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열린다. 65세 이상 75세 이하 어르신들이 대상인 이번 강좌는 선착순 20명까지 참석가능하고 무료다. 이번 프로그램은 요가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

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명상의 시간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치매의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서 마련됐다. 남구 관계자는 “요가는 뇌 기능 및 인지능력 강화에 효과적이어서 치매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